

“국비 확보하라”... 여야, 이제 예산전쟁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 470조5천억원 내달 1일부터 한달간 광주시·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긴밀 공조 필요”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끝내는 여야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를 통한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베풀고 있다.

이번 여야 간 예산전쟁에선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

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 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대거 손질’을 베풀고 있다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내달 5일 추진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다음 달 5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쟁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 회의의 일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별로 여당 또는 제1야당과의 연대 전략을 짜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선거제 개혁안 공론화 고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내가 다소 불리해도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면 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 모두를 100%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론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당론을 갖고 지도부 간에 정치협상을 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는 식은 불가능

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역량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도는 다음 달 1일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광주시도 다음 달 초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예결위원들 간의 공조 체계 구축 등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日 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철회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일본의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견서에 대해 “치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됐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며 “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서



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 안 된다.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장관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며 의견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지적 개선 이끌어내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국회 정부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부위 국감에서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험의료자문제도 문제를 지적,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감에서 장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은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객관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로밍요금, 제공량에 비해 아직도 비싸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우리나라 로밍요금이 아직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 양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60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증가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상품



은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요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의 로밍 요금제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로밍 요금은 중국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로밍 요금과 국내 요금을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 보다 무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 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시: 2018. 10. 30(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시: 2018. 10. 23(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1억천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636㎡ 백일홍 구지뽕나무 300주 48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본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5981㎡ 교환가능 7억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능동동 제일파크 14층 105㎡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농성초건너편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3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기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강진 신전면 태양광 적합지 30259㎡ 주택있음 6억5천
- 남평읍 평산리 답·전 8461㎡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8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집종지 등 1554㎡ 참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천
- 유등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평 829㎡ 45실 은행 7억 교환가능 9억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편성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미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맞남골목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10억원
- 화순 도곡면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1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나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